

임업인 초청 격려 오찬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 잘하면 변호사라는 소리를 듣는데, 정치를 하다 보니 정치하는 사람이 말을 제일 잘해야 합니다. 말 잘하면 청산유수라고 합니다. 오늘 산림청장 말씀씨를 들으면서 청산유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산림청 권역 안에 청산도 많고 유수도 많습니다. 말씀을 밤 새워 외웠는지, 잘 하셨습니다.

나무를 가꾸는 일은 미래를 내다보는 일

존경하는 마음을 표하고 싶어 이렇게 모셨습니다. 멀리 볼수록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멀리 내다보고 도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고 엉뚱하게 되는 수도 있고, 그 긴 시간을 기다리면서 무엇인가를 가꾼다는 것이 보통 인내심이 아니고는 어려운 일입니다. 나무를 가꾸시는 분들을 보면 멀리 내다보고 일을 하시는 것이 신기하고 존경스러워서 그냥 보기만 해도 머리가 숙여집니다. 특히 나무는 자체가 가치가 높은 것이어서 가치 높은 것을 가꾸시는 분들이 가치 있는 분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존경심을 갖고 치하하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처음 취임하고 몇 달 되지 않아 KBS스페셜 프로그램에서 백두대간이 훼손

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장관들이 바빠서 잘 못 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국무회의에서 같이 보게 했습니다. 그 때 이미 백두대간법은 이미 산림청에서 제출된 때였기에 빨리 준비해서 처리하기로 했고 잘 처리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산림청이 이미 백두대간법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는 사실이 대단히 듭직하고 믿음직스러웠습니다. 물론 환경부도 비슷한 법을 제출했는데, 서로 잘하겠다고 하는 것이 보기 좋았습니다.

대통령이 되고나서 해외에 많이 다녔습니다. 여러 부러운 것들이 있었지만 그 중 제일 부러운 것이 숲이었습니다. 한국도 지금은 사방이 잘 조성되어 가고 성공한 나라라고는 하지만 달랐습니다. 멀리서 보면 비슷한데도 시가지를 다니면서 보면 외국나라 숲이 훨씬 풍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도 조림에 성공한 나라지만 도시 마을도 가꾸고 싶다는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마을 숲과 생태계를 복원시키는 일은 후손에 물려줄 가장 좋은 선물

제가 우리 아이를 키울 때는 대학교 보내 놓으면 데모하다가 평생을 망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으로 제가 직접 뛰어 들었다가 팔자가 좋아서 대통령까지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둘 있는 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선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세대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릴 때 개구리 잡고 가제 잡던 마을을 다시 복원시켜서 아이들한테 물려주는 것이 제일 좋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면 저도 그런 일을 대통령 마치고 하고 싶습니다. 한 번도 하지 않은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쉬운 일인 줄 아냐 하실 것 같기도 해서 부끄럽기도 합니다. 어려운 일이라도 꼭 하고 싶습니다. 많은 연구와 노력을 통해 마을의 숲과 생태계

를 복원시키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함께 사는 촌락 공동체 같은 것을 새로운 형태로 복원시키고, 자연 속에서 순박한 정서를 가지면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시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친구로서. (박수)

맛있게 점심 드시고 좋은 대화하시고, 좋은 말씀하시면 저도 대통령 있는 동안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어떤 나라에 가도 부럽지 않고 자랑할 수 있는 촌락, 전체적으로 숲을 자랑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